

# 지리학 관점에서 도시기원 이론의 비판적 고찰

신정엽\* · 김감영\*\*

## Review on Theories of Urban Origins in the Perspective of Geography

Jungyeop Shin\* · Kamyoung Kim\*\*

**요약 :** 본 연구는 도시역사와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도시기원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기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을 농업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다. 농업적 관점은 농업잉여이론과 수력이론으로 구성된다. 농업잉여이론은 농업의 기원과 농업적 잉여 발생을 토대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이며, 수력이론은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토대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적 관점을 대표하는 교역이론은 농업에 기반하지 않고, 교역과 시장을 기반으로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은 사회제도, 종교, 전쟁과 방어 측면에서 도시기원의 원인을 찾으며 그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도시기원 논의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도시의 기원과 고대도시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도시의 기원을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기원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논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기원의 논의는 도시역사와 도시지리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도시의 기원, 농업잉여, 교역이론, 사회문화적 관점, 고대도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ritically the urban origin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history and urban geography. There is a variety of approaches for urban origins, and this research categorized them into agricultural-based, economic,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The agriculture-based perspective consists of agricultural surplus and hydraulic theories. The agricultural surplus theory argued that the city originated from the agricultural surplus, and the hydraulic theory argued the urban origin from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managing water resources. The trade theory representing the economic perspective argued that the city originated based on trade and market, not being based on agricultural surplus. Finally,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explained the urban origins and process of first cities from the socio-institutional, religious, and martial and defense approaches. These approaches are very useful in that they explained the reasons and factors for the urban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ancient cities, and will be more valuable for explanation if more approaches are considered, not a single one. Th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in that the discussions of these urban origins have great impact on the research subjects for urban history and urban geography.

**Key Words :** Urban origins, Agricultural surplus, Trade theory, Socio-cultural perspective, Ancient city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amyoungkim@knu.ac.kr)

## I. 서론

인류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도시를 만들었다. 인류 최고의 유산인 도시는 정착 및 농업의 시작과 함께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Renfrew, 2001),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도시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며(Davis, 1955), 이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 등에서 도시기원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정착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 농산물이 도시 기원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관점, 대규모 물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관점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교역과, 이를 통하여 형성된 시장이 도시출현의 출발점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또한 종교가 도시의 형성과 지속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관점, 외부의 위협(예: 전쟁,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관점도 존재한다(Childe, 1950; Wittfogel, 1957; Jacobs, 1969; 신정엽, 2016).

이처럼 도시기원 논의가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고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들이 소개되고 있다(Adams, 1960; Sjöberg, 1965; Carter, 1977; Pacione, 2009; Knox and McCarty, 2011). 그러나 도시 기원에 대한 이론들은 특정 관점만을 중심으로 기술되거나, 개관적인 수준에서 소개되는 등, 도시기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도시역사,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도시기원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도시기원을 다루기는 하였지만(예: 이해은, 1983; 김원경, 1999; 남영우, 1999), 접근이 매우 단편적이고, 이론적 논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추론적인 수준에서 내용이 전개되거나 도시기원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관련성 또는 비교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도시기원 이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고찰과 평가가 요구된다. 도시는 촌락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화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고대사회에서도 그러하다. 도시기원에 대한 심층 논의는 단순히 고대사 연구, 특정 분야의 도시현상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도시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원에 대한 여러 논의를 3가지, 즉, 농업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적 관점은 도시가 농업의 발달에 의해 기원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는 다시 크게 농업잉여이론과 수력이론으로 구성된다. 반면 교역이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은 농업발전과 관련 없이 교역의 중심지로 도시의 기원을 주장한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관점은 도시의 기원을 사회제도, 종교, 전쟁 및 방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원에 대한 논의를 도시사와 도시지리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도시기원에 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도시지리학 및 지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시기원 이론을 통해 탐색되는 도시의 특성은 현대도시에서도 발견된다.

## II. 농업적 관점의 도시기원

도시기원은 농업의 기원,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고대 인류는 식량 생산방식이 진화하면서 발전해왔다. 구석기인은 주로 수렵, 채집 방식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였다. 즉, 야생 동식물 중 먹을 수 있거나 사냥, 채집이 가능한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동식물 자원은 지리적으로 한정 또는 산재하여 식량 취득에도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동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인구증가와 함께 이전보다 더 많은 식량자원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작물화, 가축화를 바탕으로 한 농업 혁명으로 이어졌다(신정엽, 2016).

도시기원과 관련한 농업적 관점은 크게 농업잉여이론(agricultural surplus theory)과 수력이론(hydraulic theory)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농업잉여이론은 도시의 기원에 농업에 의한 잉여발생이 핵심이라고 본다. BC 1만 여년 전 지구의 상당 부분을 빙하로 덮었던 최종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후가 온난해졌다. 빙하기의 주요 사냥감이었던 거대 동물(예: 매머드)은 이제 사라졌으며, 대신 인

간은 대체 식량으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다양한 동식물(예: 야생 밀, 보리)에 주목하게 되었다. 야생식물 중에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먹을 수 있고 재배가 용이한 식물 종이 선택되어 본격 재배되었다. 또한 그동안 사냥 직후 바로 잡아먹었던 동물은 점차 사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Sherratt(1997)는 도시기원에서 가축사육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즉, 농업만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없었고, 대신 가축사육을 통해 필요 식량의 공급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Sherratt(1997)는 이를 '2차산물 혁명(second product revolu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가축은 (1) 고기나 우유, (2) 농사에 필요한 비료, (3) 노동력(예: 쟁기질), (4) 수송수단, (5) 의류자원(예: 가죽, 털) 등 인간에 매우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므로, 가축화는 Childe(1936)가 주장한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에 버금갈 혁명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농업, 가축사육은 수렵, 채집활동보다 비교우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수렵, 채집을 위해 자주 이동하는 경우, 출산, 양육이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구 성장도 더뎠다. 반면, 이동에 비해 정착은 자원, 잉여산물의 저장, 축적이 용이하며, 양육, 인구증가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김찬호 역, 1995; 김진준 역, 2013).<sup>2)</sup>

시간이 지나면서 수렵, 채집경제는 농업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단 농업이 채택되면 주변의 수렵, 채집 집단이 이 변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후, 뒤이어 농업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Maynes and Walter, 2012). 이렇게 농업이 시작되고 확산된 이유로 (1) 야생 식량자원의 고갈, (2) 재배가능한 농작물의 종류 증가,

(2) 농업기술의 발전, (4) 인구증가로 식량생산 증대의 필요성 4가지를 들 수 있다. 농업이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입지한 농업 집단은 수렵, 채집 집단에 비해 인구규모도 크고, 인구밀도가 높아 수렵, 채집 집단을 강제로 몰아내기도 하고, 이들과의 갈등에서 승리하였다. 그 결과 수렵, 채집 집단은 소수로 전락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가거나, 농업 집단에 복속, 동화되었다(김진준 역, 2013). 이처럼 농업의 시작과 문명의 발전은 한 지역에서의 정착을 통해 가능하였다. 즉, 정착은 단순히 영구 주거의 결정을 넘어서는 인류의 혁명적 변화이며, 이를 '정주혁명(sedentary revolution)'이라 한다(Renfrew, 2001; 성춘택 역, 2013).

농업잉여이론은 Childe(1936; 1950), Mumford(1961)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Childe(1936; 1950)는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인 신석기혁명의 핵심을 수렵 채집활동에서 농업으로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인류는 농업을 토대로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시기원은 농업을 통한 잉여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농업잉여가 축적되면서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잉여의 저장, 관리, 분배와 관련하여 계층적 사회분화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한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되면, 집약적 생산과 기술발전 등으로 농업잉여가 발생하는데, 이는 소비량에 비해 수확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농업잉여가 계속 축적되면서, 이를 관리, 분배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업 외의 다양한 직업이 나타났다. 더불어, 농업잉여의 통제, 축적, 분배와 관련하여 수직적으로 다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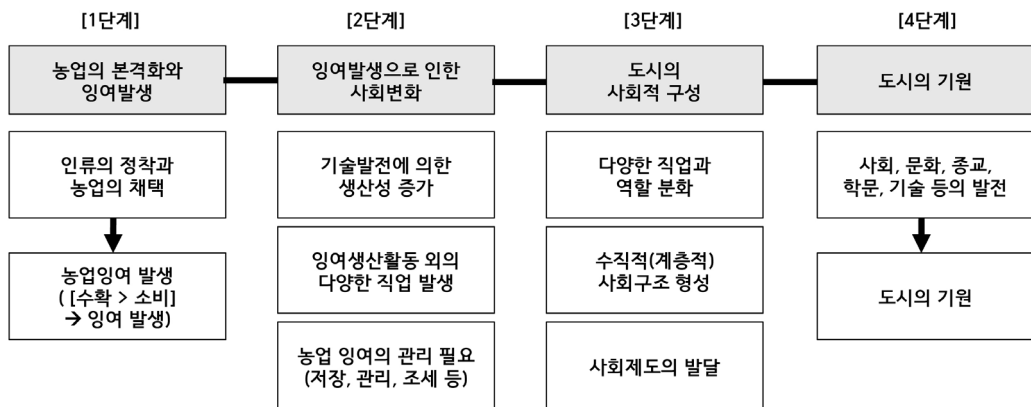


그림 1. 농업잉여이론에 의한 도시기원의 과정

력, 권한을 가진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발생, 직업전문화, 사회의 수직적 계층화 등을 토대로 중앙집권적 조직이 형성되었다.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 측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집합 공간은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Woolley (1963)도 인류문명은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획기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잉여를 토대로 진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잉여창출을 기반으로 농업 이외의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고, 잉여의 교역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잉여생산과 관리는 소규모 집단, 장소보다는 큰 규모의 집단,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이는 도시공간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된다(Carter, 1977에서 재인용).

농업적 관점의 또 다른 유형인 수력이론은 Woolley (1963), Wittfogel(1957)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수력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농업에 필수인 수자원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가지는 고대 4대 문명 발생지는 주요 하천을 끼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관료제도와 계층적 사회조직이 필요하였다. 특히, 댐, 저수지, 수로 건설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수자원의 분배, 조정, 관리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와 사회조직이 형성되었고, 이는 도시의 기반이 되었다(Wittfogel, 1957; 강봉원, 2003). 한편 수력사회의 개념은 도시화의 생태적 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즉, 도시화는 관개와 같은 수력기술의 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구규모의 증가와 인구밀집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Gadd(1962)는 엄청난 생산

물에 기반하여 선진 물질문명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도시들을 사례로, 풍요로움의 토대는 농업용토지의 비옥도이며 비옥도는 상당부분 관개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매년 봄철 반복되는 하천 범람의 통제(예: 댐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고대 수메르 도시들은 농업, 도시에 필수인 관개 시스템 구축, 관리를 통해 엄청난 잉여를 창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메르 도시가 발전하였다(Carter, 1977에서 재인용).

수력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에 필수인 관개, 치수이다. Wittfogel(1957)은 '전체권력의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라는 부제를 가진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저서를 통해 수력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치수는 수자원이 필수인 농업에 결정적이다. 그런데 상당수 수자원의 치수, 관개는 개인, 소집단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특히 대규모 저수지, 댐의 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에는 대규모 노동력과 협업조직이 요구된다. 또한 주기적인 준설, 제방관리, 수리권 조정, 중재 등은 개인 차원이 아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통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고대도시는 지배 및 피지배계급의 계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주로 강력한 전제군주가 통치하였다. 강력한 군주는 관개 사회를 통치하면서 권력을 유지한다.<sup>3)</sup> 이처럼 관개는 도시기원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정교한 관개 시스템을 건설, 유지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계층화된 사회조직을 가진 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Adams, 1960)(그림 2 참조).<sup>4)</sup>

이와 관련하여 Sanders(1965)는 단순한 천수 농업과 관개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을 비교하면서, 관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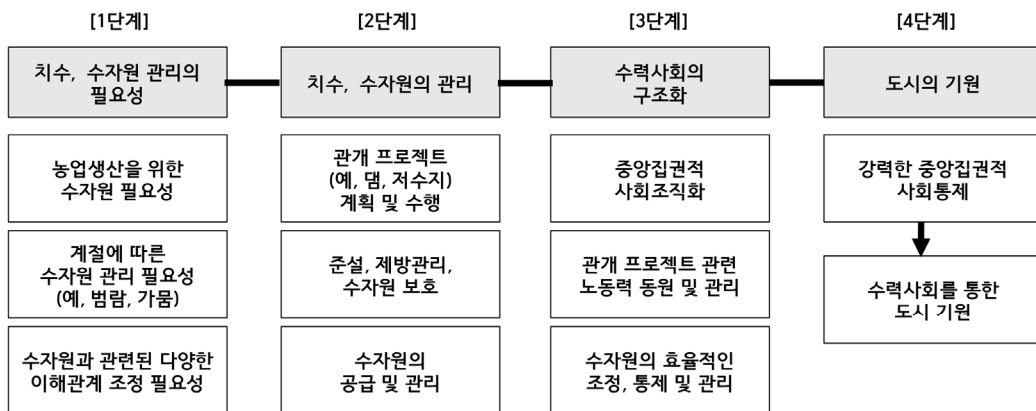


그림 2 수력이론에 의한 도시기원의 과정

으로의 진화는 인구의 빠른 성장, 중심지를 가진 주거지 발달, 기념비적 건축, 사회계층화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Sanders and Price(1968)도 화전농업 기반의 마야문명과 멕시코 고원의 수력국가를 비교하면서 도시문명의 차별화를 주장하였다(Carter, 1977에서 재인용). 관개 사회에서는 강력한 도시(또는 도시국가)의 출현과 함께, 지배 및 피지배계급이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체적 정치형태가 출현하며 주로 고대동양 사회에서 나타난다. 즉, 관개사회의 통치자는 강력한 권력을 장악, 독점하며 관료제를 유지하고 통치권을 행사한다(Carter, 1977에서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농업잉여와 수자원의 관리를 토대로 한 농업적 관점의 도시기원 논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잉여의 발생을 통해 문명과 도시의 발생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농업적 관점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환의 설명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다른 도시기원 논의보다는 보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역사적, 경제적 설명을 가지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존재한다. 우선, 농업잉여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잉여 개념이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생태적 측면에서 잉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최소치 이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Pearson(1957)은 잉여를 댐에 물이 넘치는 것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댐의 높이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댐을 넘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어야 처분가능한 잉여(disposal surplus)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한다(Carter, 1977). 또한 수력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즉, 대규모 관개시설의 건설은 국가형성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국가형성 이후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국가 형성의 요인 또는 결과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은 관개에 동원된 대규모 노동력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앙집권적 국가에 의해 관개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규모 관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건설되면서 점차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Steward(1949)도 관개가 복합사회 형성에 중요함을 지적하였다(강봉원, 2003).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업적 관점에서의 도시기원 이론은 도시기원의 비중이 가장 크며,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잉여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 III. 경제적 관점의 도시기원

두 번째 관점은 경제적 관점의 도시기원 논의로서, 특히 교역이론(trade theory)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의해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교역이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관점은 농업 관점에 비판적이면서, 농업잉여가 아닌 교역기반의 경제적 관점으로 도시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경제적 관점인 교역이론은 도시를 장거리 교역의 산물로서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시의 배후지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교역기능으로서 도시의 기록은 고대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집트 상형문자는 도시를 원(circle)안에 위치한 십자(+) 기호로 표시한다. 이는 초기 도시의 두 핵심기능을 나타내는데, 십자기호는 시장에서 다양한 교통로의 만남의 장소를, 원기호는 성벽을 의미한다. 즉, 성벽으로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도시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다(Carter, 1977).

경제적 관점의 교역이론은 Jacobs(1969)가 주도적으로 주장하였다. Jacobs는 농업 시작 이전에 이미 도시가 기원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Jacobs는 저서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1969)를 통해 도시를 폭넓은 경제적, 역사적 관점으로 고찰하였고, 농업잉여이론을 비판하면서, 도시기원과 발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신정엽, 2019). Jacobs(1969)는 농업에 의해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농업 이전에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격적인 농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히려 도시 때문이며, 농업발전의 상당 부분은 도시에 기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Jacobs(1969)는 도시기능 중에서 농업보다는 시장, 교역 기능을 더 중요시하였는데, 교역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역의 중심지인 도시는 반드시 농업이 주된 기반일 필요는 없으며, 도시는 교역,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sup>5)</sup>

Jacobs(1969)는 신석기 시대에 도시가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농업 이전에 인류가 유목(이동)하였다는 이론에도 반대하였는데, 비록 인류는 완전히 정착하지도 않았지만 유목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동물의 보급자리처럼, 인간도 비록 영구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착지는 여전히 중요하였다. 그리고 한때 일시적이었던 여러 정착지 중 일부가 발전하여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Jacobs(1969)는 농업잉여이론이

수렵채집 집단이 농업을 채택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농업잉여이론은 교배실생(crossed seeding)으로 인한 변화와 농작물 재배의 급증을 주장하였지만, 그 상세한 과정과 농업에 적합한 야생종의 주요 기준,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Jacobs(1969)는 본격적인 농업의 시작과 발전이 도시에서만 가능한 많은 재화, 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교역으로 인해 도시에는 식량자원이 매우 풍부하였으며, 따라서 농업 잉여는 도시기원 이후에나 가능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Jacobs(1969)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발명도 농촌보다는 도시에 집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 농업의 혁신인 혼종 옥수수 품종은 아이오와 주 옥수수 농장이 아닌, 미국 동부 New Haven(뉴헤븐) 도시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 과수농업의 혁신도 광활한 농지보다는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을 들었다(Jacobs, 1969; Kayaalp, 1989).

Jacobs(1969)는 농업이전에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한 Catalhöyük(차탈뤼익)<sup>6)</sup>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영국의 고고학자 James Mellaart가 1961년 발굴한 Catalhöyük은 세계 최초의 도시로도 주장된다. BC 6,000년경에 건설된 이 신석기 유적은 실은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선토기(Pottery) 시대의 정주공간층 위에 발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Catalhöyük은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를 지녔으며, 수공업, 상업 등이 발전하였

고 수천 명의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Mellaart(1967)는 이 도시의 주요 경제기반은 상업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이 지역과 주변 화산지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교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Mellaart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에서 농업의 흔적은 없었으며, 대신 사냥, 교역 등의 유적만 발굴되었다(Jacobs, 1969; Kayaalp, 1989; 신정엽, 2019).

이에 Jacobs(1969)는 Catalhöyük이 인근 흑요석 산지로부터의 접근성에 기반한 교역 중심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이는 도시에서만 가능한 창조적인 로컬 경제(creative local economy)라고 주장하였다. 도시는 자신을 둘러싼 농업 배후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며, 그보다는 도시에서의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조적 경제활동이 집적된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며, 이들 도시 간의 교역은 도시기원과 발전에 필수라고 보았다.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다양성을 지닌 도시는 창조적 사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창조적인 경제,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도시의 혁신은 교역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도시는 농업기술, 경험이 누적, 공유, 전파되는 중심지이기도 한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발명은 농업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창조적인 도시경제이다(Kayaalp, 1989; 신정엽, 2019)(그림 3 참조).

앞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Jacobs(1969)는 Catalhöyük의 모도시(parent city) 격인 New Obsidian(뉴옵시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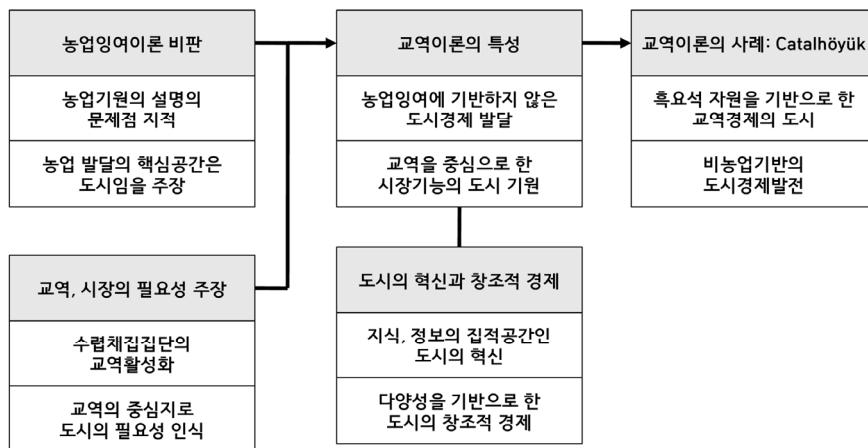


그림 3. 교역이론에 의한 도시기원의 과정

도시를 상정하였는데, New Obsidian은 주변의 수렵채집 집단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인 흑요석의 대규모 교역 중심지이다. 이 도시에서는 주요 자원인 흑요석뿐만 아니라, 수렵채집 등을 통해 얻어진 일반 생산물, 다른 지역에서의 조개껍질, 구리 등이 함께 교역되었으며, 원거리 교역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 도시도 농업, 가축사육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변 배후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즉, New Obsidian에서는 초기에는 수렵, 채집에 의한 식량을 확보하였는데, 이후 가축사육(예: 염소) 방식을 채택하였고, 야생식물의 저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종교배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발달하였다(Jacobs, 1969; Hord, 1981).

Jacobs(1969)의 교역이론은 교역의 활성화 요인으로 도시의 전문화와 다양성을 들고 있다. 사회의 다양성, 전문성이 인류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도시기원과 발달에서도 도시경제의 다양성, 전문성은 중요하다. Jacobs(1969)에 의하면 자급자족 농업사회는 농업생산을 기반의 자급자족성으로 인해 경제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다른 지역과의 교역도 필수적이지 않았다. 또한 자급자족의 농업사회는 농업혁명 등으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면 그 이후 성장이 정체된다고 보았다. 즉, 어느 정도의 잉여가 확보되면 그 이상의 추가 노력 또는 혁신보다는 안정,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역중심의 도시는 다양한 도시경제 활동으로 생산성이 높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으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역을 통해 이질적인 집단 간에 지식,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 전문성은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경제적 다양성, 전문성이 높은 도시에서는 혁신, 기술이 누적, 집중되며, 도시인구는 더욱 증가하여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다(Algaze, 2008; 신정엽, 2019).

Jacobs(1969)의 도시기원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첫째, Jacobs(1969)가 주장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도시는 여러 고대도시 사례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Davis(1973)는 고대도시에서 입지의 중요성을 여러 사례와 함께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비누석(soap stone) 자원의 교역 중심지인 테페 야하(Tepe Yahya), 소아시아 동부와 중앙의 두 산지의 교통 요지인 알티테페(Altitepe), 카카오의 교역 중심지인 루반툰(Lubaantun) 등은 특화된 자원과 교역 기능의 도시였다.

둘째, Jacobs(1969)는 도시의 기원이 농업보다 선행하며, 반드시 농업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다음 사례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마야문명 지역에서처럼, 농업기반이 아닌 고대도시도 많으며, 라가쉬(Lagash), 에리두(Eridu), 제리코(Jericho) 등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도시도 도시인구를 부양한 만한 충분한 농경지를 보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Jacobs의 교역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그 비판을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Jacobs(1969)는 농업잉여이론을 비판하면서 도시혁신이 농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Jacobs가 제시한 Catalhöyük 유적도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Jacobs(1969)가 교역이론을 주장할 때, 상반되는 많은 고고학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Kayaalp, 1989). 둘째, Jacobs(1969)는 교역을 통한 시장의 형성과 도시의 기원을 주장하였는데, 경제 관계와 교역은, 특히 근대 이전에는 도시의 고위 관료가 시장가격이 아닌 협약 등을 통해 교역을 통제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자유시장의 가격이 아닌 관습, 법률, 협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시장의 역할은 불필요할 수 있는데, 한 예로 고대 도시 바빌로니아는 시장과 시장체제 기능이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Jacobs가 주장하는 교역과 시장의 역할은 논리적 토대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교역은 도시라는 영구 정착지 없이도 가능하다. 영국의 시장은 종종 개방된 광장 등에서 열리며 이곳은 실제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수크(Suq., 시장)는 영구 정착지 없이 시장이 열리는 또 다른 사례이다(Carter, 1977). Wheatley(1971)에 의하면 고대 교역의 주요 목적은 통치자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Jacobs의 설명에는 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 또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권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도 부족하다. 만일 시장의 형성, 발달에 영구 정착이 필요 없었다면,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 경제구조의 모든 변화는 촉발되지 않았을 것이다(Carter, 1977).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Jacobs의 교역이론은 농업잉여이론 등을 보완하면서, 농업관점으로 답할 수 없는 도시기원의 중요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Soja, 2000; Smith *et al.*, 2014에서 재인용).

#### IV. 사회문화적 관점의 도시기원

농업잉여, 수력, 교역을 토대로 한 도시기원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들의 설명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이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은 도시 발달을 위한 확실한 전제조건이다. 도시 성장과 토지 생산성 및 접근성과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도시화를 유발하는 사회적 조직화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Johnston, 1977). 즉, 잉여 생산물의 이용은 새로운 도시 사회의 전문화된 부문이 될 수 있다. 생계 기반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화를 통해서인데, 잉여 생산물의 사용은 전문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문화적 질서(social or cultural order)'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Carter, 1975). 비슷한 맥락에서 Johnson (1967) 또한 정착 농경의 발전을 통하여 전체 인구의 낮은 비율만이 실제 농업생산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전보다 더 큰 정착지에 살 수 있었지만, 잉여 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s)'가 필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도시는 단순한 인구의 집중이나 경제적 잉여와 풍요로움에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 및 문화적 관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인구규모는 도시를 정의하는 한 주요 기준이지만, 규모 자체만으로 도시기원 여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도시가 촌락과 차별화되는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인구의 집중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및 문화 요인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기원된 도시는 사회, 문화, 종교, 전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처럼 사회문화 측면에서 도시가 촌락과 구분되고 기원하였다는 주장을 사회문화적 관점이라 한다. 도시와 관련하여 단순한 인구의 밀집 측면보다는, 도시 내 사회계층의 형성, 도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회 및 정치 제도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문자, 과학, 기록, 기술 등이 발명, 발전하였다. 그리고 종교 측면에서 도시에서는 다양한 종교의식이 치러지며, 이를 수행하는 종교건물, 공간이 존재하며, 종교 관련 직업도 형성되었다. 한편, 군사 및 방어 측면에서 도시는 성벽을 통해 외부와 물리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며, 외부집단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인구, 시설, 제도를 갖추기도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이 가지며, 여기서는, 주로 사회제도, 종교, 전쟁 및 방어의 측면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제도 측면

도시기원의 사회제도 측면에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며,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정치, 교육, 법률 등 필요한 제도를 발전시킨다(Johnson and Earle, 2000).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영장류와 다른 점의 하나는 자신을 '사회적 울타리(social cage)'에 가두고,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원시농업의 시작과 더불어 씨족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울타리인 씨족집단에 자신을 가두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본능과 자유가 억제되는 대신, 생존,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본격적인 농업의 시작과 축적되는 잉여가 급증하면서 집단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에 '사회적 울타리'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중앙집권적 계층적 사회조직으로 진화하면서, 강력한 통제권력 아래 개인의 본능, 이동, 자유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구속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 울타리'에 가두어진 인간은 19세기 이후 산업화, 현대화를 통해, 비로소 '울타리'를 뛰쳐나오면서 개인의 휴머니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울타리는 개인에게 집단의 소속으로 인한, 생존, 안전, 정보 공유 등의 긍정적인 기여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즉, 친족, 집단, 국가라는 사회적 울타리에 가두어진 개인은 자의와는 별도로 타의에 의해 사회화되거나 사회 불평등 속에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울타리는 정주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히 도시의 기원 이후에는 도시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Maryanski and Turner, 1992; 성춘택 역, 2013). 한편 농업잉여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인류는 식량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많은 자유 시간이 생겨났으며, 이는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인류발전과 함께 개인을 위한 사회, 행정제도 등이 정립, 체계화되었다. 반면 사회제도는 권력자의 통치권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은 점차 자급자족 경제와 정착시스템을 공고히 하였다. 한 공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구와 자원을 생산, 관리, 통제, 분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필요하였다(Blanton, 1982).



도시의 사회제도 측면에서 기록과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식, 기술이 축적된 도시에서 법전, 역사, 공식문서 등을 문자로 기록하여 미래에 전달한다. 또한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통치자의 명령, 제도, 경제, 사회의 지식을 공유, 전파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기록은 신성한 글귀, 부적 등의 형태로 숭배하는 신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Renfrew and Bahn, 1991). 고대도시에서는 조세, 노역 등을 위한 사회제도도 중요하였다. 통치자(또는 왕)는 자신의 권력 유지, 풍요로운 경제영위, 계층적 사회조직화 및 경제영역 관리 목적에서 조세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조세를 위해 토지, 주택, 재산을 조사,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 징수하였다. 한편 왕궁, 신전, 댐 등의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이 필수였다. 이에 부역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부역을 동원하였다. 또한 사회는 계층구조를 가지며, 계층별로 적용되는 사회제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예 등은 귀족, 평민과 차별화된 사회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한편 가족 차원에서 가족제도, 재산권, 상속권, 증여 관련 제도도 완비되었다(한상인, 2004). 또한 도시에는 결혼, 장례, 제사 등의 의례도 발전하였다. 인간은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고,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지는데, 이러한 의례들이 정교해지고, 세분화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제도화되었다. 더불어 도시에서는 한 공간에 모여 사는 인구에 대한 관리, 감시, 통제의 기능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이질적인 다양한 개인들이 도시의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 2. 종교 측면

이 이론은 종교기능을 중심으로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며, 이렇게 모인 곳을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형성, 발전하면서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원된 도시의 중심에는 종교사원, 제단, 종교건물, 기념물 등이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종교 기능의 건물과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인 성벽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중심으로 한 공간(도시)에 밀집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

였다. 이는 이슬람 도시의 기원에서도 잘 드러난다(Carter, 1977). 또한 종교의례가 주로 이루어진 도시의 중심지에는 신전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인간에게 종교는 중요한 믿음체계로서,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신이 대리자를 통해 소통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대도시에서는 신의 대리자인 종교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신과 소통하는 장소인 성소(聖所), 종교의례의 제도, 의식이 도시기원에서 매우 중요하였다(김찬호 역, 1995).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도시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Carter, 1977).

도시에는 물리적 측면에서 종교건물이 입지하며, 인구측면에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한다. 도시기원 또는 초기에는 도시가 종교, 제례의식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종교공간이 형성, 발전하였고, 경관 측면에서도 높은 종교건물(예: 신전)을 통해 종교적 위엄을 과시하였다. 도시의 성직자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일부는 경제기능(예: 잉여물 공납, 저장, 관리)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신전은 단순히 종교기능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기원 당시에는 제정이 분리되기 전이었으며, 이때 신전은 공납되는 잉여물의 축적공간 역할을 하였고, 과세 및 관리 등을 위한 문자, 기록, 수학도 발전하였다. 또한 도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다양한 산물, 자원이 집중되는 신전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복합쇼핑센터'의 기능도 수행하였다(Kotkin, 2005).

도시기원과 고대도시의 초기에는 종교기능이 강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치, 제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정치지도자의 공간인 왕궁과 관청건물이 도시에 건설되었으며, 도시성곽도 조성되면서 도시의 종합적인 경관이 완성되어 갔다(Spodek, 1975; Blanton, 1982; Kotkin, 2005).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개인 또는 집단은 종교의례, 의식을 가지며, 조상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종교의례를 수행한다. 또한 고대도시는 각 도시가 숭배하는 신이 존재하였으며, 숭배를 위해 도시의 중심에 신전을 건설하고, 종교의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도시 간 전쟁에서 패배한 도시는 자신의 신을 상실하고, 정복도시의 신을 숭배하는 새로운 신전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도시 간 전쟁을 통해 원래 존재하였던 다양한 토속신앙, 신들은 사라져버렸다(Sjoberg, 1960; Wheatley,

1971; Blanton, 1982).

도시의 종교기능은 고대도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Wheatley(1971)는 중국 고대도시가 종교의 중심지로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이 종교 중심지는 우주적인 마법의 형태를 갖추고 이곳에서의 의례를 통해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Wheatley(1971)는 이러한 우주적인 마법기능이 고대도시의 주요 특징이며, 관련 사례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지역, 메조아메리카, 안데스 중부,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종교 중심지를 언급하였다. 또한 Wheatley(1971)는 이러한 도시의 종교 중심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Spodek, 1975). 한편 페루의 차빈(Chavin) 고고유적지, 메소포타미아의 우바이드(Ubaid) 문명에서 처럼 소규모 성지와 그 주변의 농업 커뮤니티를 도시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소규모였던 성지와 농업 기반의 커뮤니티들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 통합되고, 통합된 더 큰 커뮤니티를 위해 종교 기념물이 건설되었다. 이는 도시에서 종교기능이 또한 농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과 관련된다. 즉,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에 대한 종교적 의례도 도시의 중요한 종교 기능이였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한 날씨, 기후, 천체에 대한 예측과 의례는 종교지도자의 위상을 높게 유지시켜 주었다. 한편 대규모 공식 종교건물이전에는 보통 사후 장례의식을 위한 소규모 의례 장소가 원래 많이 입지하였으며, 공예·기술의 발달로 많이 장식된 종교건물이 나중에 들어섰다(Adams, 1956; Carter, 1977).

고대 인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초기 수렵채집 집단은 이러한 인식과 믿음보다는 사머니즘의 측면을 띠었고, 종교의식, 의례 등도 간헐적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의식, 의례는 진화하였는데,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식, 믿음이 발생하며, 또한 조상숭배 및 내세 믿음에 대한 대응으로 종교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Johnson and Earle, 2000).<sup>7)</sup> 종교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에게 종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구원과 함께 만족감과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사회차원에서 인간은 종교집단을 구성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독실한 종교적 애착심, 결속력을 갖는다. 또한 종교는 경찰력, 재판

권이 없었던 고대사회에서 사회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통제, 통치역할을 수행하였다. 종교는 국가, 지역에 대해 목표와 존재의미를 규정하며, 국가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이용주 역, 2015).

한편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4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가설은 유기체적 진화론으로, 인간이 진화하면서 적응과정의 하나로 종교 활동이 발달하였다고 본다. 이 가설에 의하면 종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며, 계층적 사회를 잘 유지하도록 기능해왔다(Wilson, 1975). 두 번째 가설은 종교를 고대사회에서 인간의 인지체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로 보는 관점이다. 수렵채집 집단에게 포식자의 두려움,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적 추론,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한 인지적응능력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능력의 하나로 종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Wolpert, 2006). 세 번째는 유전 및 복제로서의 종교 관점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유전의 형태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이 복제되며, 이 유형의 하나가 종교라고 주장된다. 종교적 믿음은 여러 방식으로 부모에서 자식에게 계승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는 부모 또는 신뢰하는 어른이 주는 종교적 신념을 자연스럽게 뇌에 장착 또는 받아들여 자신의 종교로 만든다는 주장이다(Dawkins, 1976). 마지막 가설은 종교적 점화(religious priming)인데, 종교적 믿음과 인식의 점화를 통해 사회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종교적 사고와 믿음은 인간의 의사결정,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며, 이러한 종교적 점화(또는 자극)를 통해 사회성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Norenzayan, 201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시기원에서 종교기능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종교기능만으로는 도시가 기원, 유지되기는 어렵다. 초기 사원의 발달은 농업에 기반한 일정 규모의 인구밀집을 전제로 하였으며, 또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사원의 건설, 관리가 이루어졌다. 초기 커뮤니티를 지배하던 종교 지도자는 인구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행정, 정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서 행정, 정치기능이 점차 커지는 반면, 종교기능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도시는 종교기능 중심에서 엘리트 중심의 행정, 정치기능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우악삭툰(Uaxactun)의 A-V complex, 페루 북부해안의 모치카(Mochica) 문명의 궁전을 들 수 있다(Adams, 1956; Carter, 1977). 한편 도

시가 발전하고 도시 내와 도시 간 집단들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이 빈번해지게 되었으며, 이제 도시는 종교지도자 보다는 군사 통제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통합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면서, 종교기능보다는 중앙집권적 권력과 군사력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체제로 변화하였다(Adams, 1956; 1960).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종교는 도시를 기원하는 유일한 요인이기보다는 다양한 사회문화 측면들과 결합되어 도시를 기원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전쟁 및 방어 측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도시기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시도가 전쟁 및 방어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기원은 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고대사회는 생산력이 높지 않아서 생존을 위해 화합보다는 집단 간의 약탈, 전쟁 등의 갈등이 빈번하였다. 갈등의 결과 많은 전쟁이 발달하였는데, 침략의 측면 외에 방어측면에서 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요충지에 거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형적으로 방어가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났다. 방어측면에서 도시는 자연 지형 자체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추가로 성벽을 쌓고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방어도시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도시의 상당수는 성벽을 포함한 도시 공간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최초의 도시의 하나로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Ur)는 대표적인 성벽도시로, 진흙으로 만든 8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2km의 길이, 0.8km의 너비의 타원형의 형태를 가진다. 또한 도시 내부의 비계획적이고 좁고, 굽이치는 도로형태들은 방어 및 개인보호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sup>8)</sup>(Pacione, 2009; Knox and McCarty, 2011). 또한 전쟁 준비 또는 방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군대 조직이 필요하며, 상당수의 인구가 군인이 밀집된 성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 발전하였다(Wheatley, 1971). 도시의 방어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방어 시설인 성 안쪽 공간에 인구가 집중되며, 이 공간에는 다른 여러 기능도 입지한다. 도시가 건설될 때 방어기능을 중요시하여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Catalhöyük 유적에서 주택들이 현관문, 담장 없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배열은 방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유적의 방어체계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이 도시에서 800여 년 간 대량학살의 증거가 없었다(Carter, 1977; 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2008). 다른 사례로 Kenyon (1957)는 「제리코의 발굴(Digging the Jericho)」에서 선토기 신석기(pre-pottery neolithic) 시대 정주기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최초의 정주공간'을 규모 면에서 촌락이 아닌 도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적에는 방어를 위한 성벽이 잘 나타나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배수로와 성탑의 위치와 일치한다. 도시의 정교한 방어 시스템은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다(Carter, 1977).

고대사회에서 전쟁은 정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9)</sup> 전쟁은 이동집단보다는 정착집단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환경이 좋은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 지역에 자원과 부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풍요롭고 유리한 정착공간에 대해 경쟁, 약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전쟁은 다양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평등사회보다는 계층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Fried, 1967). 한편 인류 최초의 전쟁은 구석기 또는 중석기로 추정되지만, 조직화된 전쟁의 증거, 기록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구석기에도 정착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Mellaart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정착지가 있었고, 대부분 요새 형태를 띠었다. 즉, 방어 목적으로 요새가 건설되었으며, 일부는 거대한 성곽, 탑으로 구성되었다(이춘근 역, 1990).

앞서 검토한 도시기원의 사회문화적 측면은 고대 4대 문명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여러 부족국가들이 통합되어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이 도시는 운하, 경계적으로 도시경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수메르 도시 공간의 중심에는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으며, 제의, 자연숭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 또는 왕이 도시를 통치하였다. 도시의 왕은 종종 최고 신관이면서,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도 강화하였다. 왕의 아래에는 행정관료, 농업, 무역, 공납을 담당하는 주민, 노예 등으로 계층적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기록, 과학, 기술 등이 발전하였으며, 상당부분은 왕의 권력유지, 잉여생산과 관련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형적인 큰 장애(예: 산맥)가 없어 주변지역과 쉽

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이민족의 침입이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교류, 교역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수메르 지배층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반면 이집트 문명지역은 주변이 사막 등 건조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이 어려우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내부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지배계층의 교체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이주형 · 이석우, 2012). 중국 황허 문명은 농업이 주요한 경제활동의 원천이었다. 농업의 생산주체는 고대에는 농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가부장적 가족의 토지소유, 호족의 대토지 소유 등으로 변화하였다. 왕은 전제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강력한 왕권을 이용하여 군대를 유지관리하고, 수력을 중심으로 한 관개시설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Wittfogel, 1957). 이 문명지역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윤리를 중심으로 한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인도의 불교전파, 로마, 페르시아와의 문화교류 등으로 이 지역으로 외부에서 문화가 전파되었지만, 전통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더스 문명지역에서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대신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분리하여 존재하였다. 이들 국가는 자신만의 시간 측정을 하여 시대 구분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록도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인도 문명은 크게 고대 힌두시대, 중세 이슬람시대, 근대 유럽식민지시대로 구성되는데, 인도문명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카스트 제도, 정체성, 종교성을 들 수 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도시 유적을 통해 매우 진보된 방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 V. 도시기원 논의의 시사점

이 논문에서는 도시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농업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점들이 도시기원의 사례로 제시하는 증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기원을 설명할 때 특정 관점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일한 고고학적 사례들이 여러 관점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통하여 도시기원에 대한 설명에 있어 3가지 관점 모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

는 도시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세도시, 현대도시의 논의에서도 적용되어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시 기원에 대한 3가지 관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시기원을 이해함에 있어 도시 기원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기원 시기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BC 6,000~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 기원하였던 시기의 기후 및 환경은 현재의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4대 고대문명지역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에는 상당부분 건조기후에 속하지만, 도시의 기원 당시에는 현재와는 다른 기후 및 환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sup>10)</sup> 또한 특정 지역을 고대 도시 또는 도시의 기원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인 인구규모도 현재의 도시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대 특정 지역의 인구가 현재의 5만 명의 도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도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우르(Ur)의 인구는 5,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규모는 현재 일부 국가의 도시 인구기준인 200명(노르웨이), 1,000명(캐나다), 2,000명(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다. 또한 고대도시의 판정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경제활동 구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관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도시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구성의 대부분을 이루며, 농업의 비중은 매우 작거나 미미하다. 그러나 도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 도시에 적용된 것이며, 고대도시에서는 농업, 상업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리라 추정된다(신정엽, 2016).

둘째, 도시의 기원 논의에서 핵심 요인으로 잉여를 들 수 있다.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활동하게 되는 도시는 집적하는 목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집적의 목적은 잉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그만큼의 잉여 축적과 지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잉여의 창출은 농업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교역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 즉, 잉여는 농업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교역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잉여의 관리, 분배, 통제

등을 위해 도시에서 사회, 제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잉여는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잉여는 도시의 기원과 고대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도시 기원에서 중요한 것은 정착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도시에서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이동성이 활발해지고 효율화되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종속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수렵채집 집단의 이동성은 도시의 기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며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인구가 특정 공간에 모이게 되면서(사회적 증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잉여의 발생과 축적이 용이하게 되었다. 더불어 인간은 정주혁명을 통해 유무형의 문명과 다양한 발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주의 고도화된 방식이 도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Wilson, 1988; Renfrew, 2001; 신정엽, 2016).

넷째, 도시의 기원과 관련하여 핵심은 도시의 기능이다. 도시는 중심지로서 주변 배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과 지역적 연계를 가진다. 또한 도시는 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창조,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Jacobs(1969)가 강조한 것처럼, 인류에서 혁신은 인류 발전의 근간이 되며, 도시는 이러한 혁신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기원, 고대도시뿐만 아니라, 현대도시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도시역사와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도시기원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도시기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즉 농업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도시기원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농업적 관점은 농업을 기반으로 도시기원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며, 이는 다시 농업잉여를 토대로 한 이론과 수자원 관리를 통한 사회제도 형성에 대한 수력이론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농업에 기반하지 않고

교역과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교역이론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도 검토되었다. Jacobs(1969)를 중심으로 한 교역이론은 Catalhöyük의 사례, 도시의 창조적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잉여에 기반하지 않고, 도시가 기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은 도시의 경제측면이 아닌, 사회, 종교, 문화 등의 측면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종교측면과 전쟁 및 방어측면으로 구성된다. 도시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만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촌락과 차별화되는 사회제도의 발달이 도시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도시기원과 초기도시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종교의례를 수행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되었다. 그리고 전쟁과 방어측면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성벽을 포함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면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시기원에 대한 3가지 논의는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가지며, 도시기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만으로 도시기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3가지 논의가 함께 동원됨으로써 보다 설명력을 보다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시기원 논의의 상당부분은 지리적 개념과 공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기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풍성하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역사뿐만 아니라, 현대도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시기원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註

- 1) 여기서 농업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은 일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 보이지만, 농업적 관점의 농업잉여 이론과 교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관점은 서로 상반되는 비판적 논쟁이 있어, 이를 통합하기 보다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한편 정착 농업집단이 이동집단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도 존재한다. 즉, 농업집단이 화전이나, 수렵, 채집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에 비해 노동투입시간이 더 많고, 수렵, 채집 집단의 체격, 영양 상태, 수명도 농업

- 집단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Carneiro, 1961; Hunt, 2000에서 재인용; Maynes and Walter, 2012; 김진준 역, 2013). 이를 근거로 이동식 경제가 농업경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Hunt, 2000).
- 3)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용어는 Wittfogel의 저서(1957) 제목에서 유래되었는데, 수력사회의 환경, 기후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해준다. 이 조건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원활한 식량 생산을 위한 관개의 필요로, 동양의 통치자들은 전제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양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수력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Eberhard, Leach 등은 Wittfogel의 논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Eisenstadt도 Wittfogel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력사회의 하위 유형들을 무리가 늘리려고 하였다고 비판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 4) 비록 Wittfogel의 저서(1957)에서는 ‘도시’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수력이론과 도시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Carter, 1977).
  - 5) 한편 시장으로서의 도시는 각 도시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자신이 가지는 자원을 판매하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교환, 교역을 수행한다. 자원은 자연환경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또한 인문환경에 따라 노동력, 자본도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이러한 자원, 노동력, 자본의 지역 차이에 따라 비교우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각 사회에 필연적으로 지역간에 교역을 수반하며, 따라서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활발한 교역을 위해서는 교통의 요지나 자원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며, 시장을 중심으로 인구, 자본 등이 모여 도시가 형성된다(Algaze, 2008).
  - 6)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Catalhöyük에 대해 Jacobs(1969)는 Catal huyuk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유적지의 최초 발굴자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 유적지를 발굴 중인 Hodder와 다른 연구자들은 Catalhöyük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공식명칭도 Catalhöyük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다 공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atalhöyük의 표기를 사용하였다(신정엽, 2019).

- 7) 고대도시에서 종교적 측면은 매장, 종교적 상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망자의 의식적인 매장은 삶/죽음에 대한 인식, 내세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적 사고를 나타내는 동굴벽화를 통해 당시 고대인의 종교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 8) 우르 도시의 내부에는 도시의 중심지에 왕궁과 고급관료의 주택들이 위치하며, 또한 지구라트라는 종교 건물도 위치하고 있다. 약 35,000명을 성벽 내부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우르의 성벽 밖에는 20만명을 수용하는 서민의 주택과 농장이 입지한 것으로 알려진다(Knox and McCarty, 2011).
- 9) 선사시대 전쟁의 가설로는 Hobbes(1651), Rousseau(1755)를 참고할 만하다. Hobbes(1651)는 만인 대 만인을 위한 싸움으로 전쟁을 설명하였는데, 전쟁은 절대 평화상태보다는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Rousseau(1755)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관련하여, 고결한 야만인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았다. Rousseau는 인류역사를 자연상태 → 전쟁상태 → 문명사회 → 소규모 이상국가로 구분하였으며, 전쟁상태는 비문명에서 문명의 상태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설명된다(정승욱, 2007).
- 10) 고대 4대문명지역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Fertile Crescent)’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와는 달리, 고기후 상에서는 충분한 강수량, 적절한 토양, 자원 등으로 인해 정착을 통한 도시의 기원이 가능한 기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많다(김용환, 2003; 김진준 역, 2013; 성춘택 역, 2013). 따라서 김원경(1999)에서 주장한 것처럼, 해당 지역이 비옥하지 않아서 이 지역의 이름을 원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당시 고기후 상의 다양한 지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raidwood가 제시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봉원, 2003, “한국고대 국가형성에 있어서 관개수리의 역할: 유틀포겔(Wittfogel)의 수리이론과 관련하여”, 한국고사학보, 39, 51-70.

- 김용환 2003, 「인류진화의 오디세이」, 가람기획.
- 김원경, 1999, “도시의 발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29-45.
- 김진준 역, 2013, 「총, 균, 쇠: 무기 병원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문학사상(Diamond, J., 1998,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y*, New York: WW Norton).
- 김찬호 역, 1995, 「작은 인간」, 민음사(Harris, M., 1989, *Our Kind: Who We Are, Where We Came From, Where We Are Going*, Harper & Row Pub).
- 남영우, 1999, “터키 아나톨리아 선사취락 차탈휘이크”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2(2), 47-59.
- 성춘택 역, 2013, 「기원과 혁명: 휴머니티 형성의 고고학」, 사회평론(Gamble, C., 2007, *Origins and Revolution: Human Identity in Earliest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신정엽, 2016, “도시기원 관점에서의 문명, 농업, 국가 기원의 이론적 고찰” 지리교육논집, 60, 1-17.
- 신정엽, 2019, “Jane Jacobs의 도시 사고를 토대로 한 도시기원 이론의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8(3), 497-516.
- 이영주 역, 2015, 「종교 유전자: 진화심리학으로 본 종교의 기원과 진화」, 파주: 아카넷(Wade, N., 2009, *The Faith Instinct: How Religion Evolved and Why It Endures*, New York: Penguin Press).
- 이주형·이석우, 2012, 「신들의 도시, 왕들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 보성각.
- 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Ferrill, A., 1985, *The Origins of War: From the Stone Age to Alexander the Great*, London: Thames and Hudson).
- 이혜은, 1983, “도시의 기원” 대한지리학회보, 19, 1-15.
- 정승욱, 2007, “루소에 있어서의 자연과 역사의 문제: [불평 등기원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25, 335-359.
- 한상인, 2004,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사회제도 비교” 구약논단, 16, 317-357.
- Adams, R., 1956, Hypotheses on the development of early civilization, *American Antiquity*, 21(3), 227-232.
- Adams, R., 1960, The origin of cities, *Scientific American*, 203(3), 153-172.
- Adams, R., 1966, *The Evolution of Urban Society*, Chicago: Aldine.
- Algabe, G., 2008, *Ancient Mesopotamia at the Dawn of Civilization: The Evolution of an Urban Landsca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nton, R., 1982, Urban beginning: A view from anthropological archaeology, *Journal of Urban History*, 8(4), 427-446.
- Carneiro, R., 1961, Slash-and-burn cultivation among the Kuikuru and its implications for cultural development in the Amazon, in Wilbert, J., ed., *The Evolution of Horticultural Systems in Native North America*, Caracas: Sociedad de Ciencias Naturales La Salle, 47-67.
- Carter, H., 1975, *The Study of Urban Geography*, 2nd edition, London: Edward Arnold.
- Carter, H., 1977, Urban origins: A review, *Progress in Geography*, 1(1), 12-32.
- Catalhoyuk Research Project, 2008, *Catalhoyuk 2008 Archive Report* ([http://www.catalhoyuk.com/sites/default/files/media/pdf/Archive\\_Report\\_2008.pdf](http://www.catalhoyuk.com/sites/default/files/media/pdf/Archive_Report_2008.pdf)).
- Childe, V.G., 1936,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s and Co.
- Childe, V.G., 1950, The urban revolution, *Town Planning Review*, 21(3), 3-17.
- Davis, K., 1955, The origin and growth of urbanization in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5), 429-437.
- Davis, K., 1973, *Cities: Their Origin, Growth, and Human Impact*, San Francisco: Freeman.
- Dawkins, R., 1976,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홍영남·이상임 역, 2010,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 Fried, M.H., 196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An Essay in Political Anthropology*, Vol. 7, New York: Random House.
- Gadd, C.J., 1962, *The Cities of Babylo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1, Volume 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is, M., 1971, *Culture, Man, and Nature*, New York: Crowell.
- Hobbes, T.,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 Hord, J., 1981, A proposal on the nature of the onset of

- civilization, *Comparative Civilization Review*, 7(7), 45-53.
- Hunt, R., 2000, Labor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oserup revisited, *Human Ecology*, 28(2), 251-277.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 Johnson, J.H., 1967, *Urban Geography: An Introductory Analysis*, Oxford: Pergamon Press.
- Johnson, A. and Earle, T., 2000,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hnston, R.J., 1977, Regarding urban origins, urbanization and urban patterns, *Geography*, 62(1), 1-8.
- Kayaalp, O., 1989, The Jacobs hypothesis of the urban origin of agricultural activity: Twenty years later,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8(3), 683-691.
- Kenyon, K.M., 1957, *Digging Up Jericho*, London: Benn.
- Knox, P. and McCarthy, L., 2011, *Urbanization: An Introduction to Urban Geography*, 3rd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Kotkin, J., 2005, *The City: A Global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Inc.
- Maryanski, A. and Turner, J.H., 1992, *The Social Cage: Human Nature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ynes, M. and Waltner, A., 2012, Temporalities and periodization in deep history: Technology, gender, and benchmarks of “human development”, *Social Science History*, 36(1), 59-83.
- Mellaart, J., 1967, *Çatal Hüyük: A Neolithic Town in Anatolia*, New York: McGraw-Hill.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vest Books.
- Norenzayan, A., 2013,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홍지수 역, 2016,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김영사).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Pearson, H.W., 1957, The economy has no surplus: A critique of a theory of development, in Polanyi, K., Arensberg, C.M., and Pearson, H.W., eds., *Trade and Market in Early Empires*, New York: Free Press, 320-341.
- Renfrew, C., 2001, Symbol before concept: Material engagement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society, in Hodder, I., ed., *Archaeological Theory Today*, London: Polity Press, 122-140.
- Renfrew, C., 2003, *Figuring It Out: What Are We? Where Do We Come From? The Parallel Visions of Artists and Archaeologists*, London: Thames and Hudson.
- Renfrew, C. and Bahn, P., 1991,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New York: Thames and Hudson.
- Rousseau, J., 1755, *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 Sanders, W., 1965, The Cultural Ecology of the Teotihuacan Valley, Unpublished Report,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anders, W. and Price, B., 1968, *Mesoamerica: the Evolution of a Civil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 Sherratt, A., 1997, *Economy and Society in Prehistoric Europe: Changing Perspectiv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joberg, G., 1960, *The Preindustrial City: Past and Present*, New York: Free Press.
- Sjoberg, G., 1965, The origin and evolution of cities, *Scientific American*, 213, 54-63.
- Smith, M., Ur, J., and Feinman, G., 2014, ‘Jane Jacobs’ ‘Cities First’ model and archaeological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Regional Research*, 38(4), 1525-1535.
- Soja, E.W.,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 Blackwell.
- Spodek, H., 1975, Essay review: Urban history in ancient society, *Journal of Social History*, 8(2), 121-125.
- Steward, J., 1949, Cultural causality and law: A trial formulation on the development of early civiliz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51, 1-27.
- Wheatley, P., 1971, *The Pivot of the Four Quarters: A*



*preliminary Enquiry into the Origins and Character of the Ancient Chinese City*, Chicago: Aldine.

Wilson, E.,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Belknap Press.

Wilson, P., 1988, *The Domestication of the Human Spec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Wittfogel, K., 1957, *Oriental Despotis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구종서 역, 1991, 「동양적 전제주의, 법문사).

Woolley, L., 1963, *History of Mankind: Prehistory and 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 Row.

Wolpert, L., 2006, *Six Impossible Things Before Breakfast, The Evolutionary Origins of Belief*, New York: Norton (황소연 역, 2007, 「믿음의 엔진, 예코의서재).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

교신 : 김감영,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amyoungkim@knu.ac.kr)

Correspondence : Kamyoung Kim, 41566,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kamyoungkim@knu.ac.kr)

투고접수일: 2020년 7월 13일

심사완료일: 2020년 7월 28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3일

